

안녕하세요. 재수로 합격한 서울 지원자입니다.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수업실연	지도안	면접	실기	총점
교육학: 15 전공 : 49.33	18.2	10	37.07	20	149.6 (컷트: 145.67)

저는 초수 때와 같이 교육학은 전태련 교육학과 전공은 위상미술을 수강하였습니다.

1. 1차 전공

1차 전공 같은 경우는 제가 점수가 높지 않은 편이고 컷에서 1.33을 넘긴 점수라 많이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집 근처 도서관에 매일 가서 전공에서 카테고리(ex: 서양미술사, 동양미술사, 디자인)를 나눈 후에 카테고리 별로 관련 서적을 읽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초수 때 전공점수가 낮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이해를 먼저하기 보단 많은 정보를 일단 외우고 보자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일단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읽으면서 내용을 추리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린 내용을 작년에 공부했던 위상 3-4월 심화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즉, 위상 심화자료에 제가 추린 내용을 조금 추가해 새로 교재를 만들어 공부했습니다.

3-4월에는 1,2월에 정리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해하는 시간은 1-2월에 충분히 가졌으니, 이 기간에는 완벽하게 숙지하고 체화하기 위해서 매일 공부한 내용을 백지 쓰기를 해 부족한 부분을 다음에 공부할 때 더 신경 쓰는 방법을 사용 했습니다

5-6월부터는 직강을 듣기 시작하였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파악한 후 그 부분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취지 파악하는 연습을 5-6월 자료를 통해 했습니다. 5-6월 자료는 11월 마지막까지 반복적으로 복습하였습니다.

7-8월에는 영역별 심화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영역별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풀 후에 받은 장지연 쌤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 문제점을 고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10월에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취지 파악하는 연습을 하고, 다시 기초로 돌아가 기본적인 것을 그동안 놓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거는 누구나 다 알고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못 적고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이론은 1년 내내 놓지 않고 반복학습 했습니다.

11월에는 마지막 최종점검 시간으로 기본 자료와 5-6월 모의고사를 복습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용 요약

→ 위상 심화자료는 2주 동안 전체를 다 돌 수 있도록 요일별로 영역을 나누어 돌려봤습니다.

그날 공부한 내용은 꼭 백지쓰기를 해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는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전 영역을 편식하지 않고 다 보았으며, 그 중에서도 미술교육론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 5-6월, 7-8월, 9-10월 모의고사 순으로 중요도를 나누었고, 5-6월은 11월까지 복습했고, 7-10월은 반복해서 풀어도 잘 풀어지지 않는 부분만 추려서 반복 복습했습니다.

→ 역대 기출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영역을 파악해 그 부분에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출은 모든 시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1차 전 스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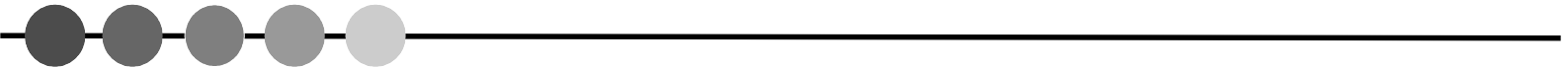
1차 시험 전까지 스터디는 전년도 2차를 같이 준비했던 분들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총 4명)

일주일에 한번 씩 만났고, 1-2월에는 역대 기출을 년도 별로 일주일에 하나씩 각자 풀어오고 서로 풀어온 방식에 대해 토론하고, 기출분석을 바탕으로 서로 문제점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4월에는 교과서 분석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교과서를 맡아서 중요한 도판과 그에 해당하는 설명을 한글파일로 작성해 서로 공유하고 각자가 만든 영역을 설명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8월에는 위상 모의고사를 푼 후에 각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고, 상대방은 어떻게 취지파악을 하고 풀어냈는지 서로 확인하며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10에는 **역대 기출**을 다시 풀어보며 계속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서로 질문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위상 모의고사 푼 후에 서로 논술형 피드백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을 구조화 하는 방법과 전체를 매끄럽게 이어주고 키워드를 정확히 썼는지 확인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 1차 발표 후

3. 수업실연

1차 시험 후 기존 스터디 원과 같이 일주일에 한번 씩 **역대 기출**을 바탕으로 서로 수업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같은 주제를 각자 어떻게 풀어내는지 알아보고, 장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서로 적어서 종이를 교환하였습니다.

1차 발표 후에는 서울 지원 선생님 총 3명이 역대 기출을 기준으로 수업하는 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보통 교과서를 서로 분석하여 주제를 추려서 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저는 역대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교과서는 볼 여력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매 실연 때마다 촬영을 하여 집에 가서 제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실제 시험: 저는 두 번째 순서를 뽑아서 구상할 시간이 부족해서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점관 분들이 반응을 잘해주시고 집중을 잘해 주셔서 당황하지 않고 제가 계획 한 대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18분 정도에 마쳤고, 평소와 같이 수업을 했지만, 교실이 텅 비어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목소리를 더 크게 했습니다.

4. 지도안

지도안은 올해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필요 없겠지만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장지연 쌤 앞에서 실연할 때 지도안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지적을 받고 지도안 쓰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역대 기출**을 기준으로 기출 해설답안을 보며 작성하는 방식을 숙지했고 다행히도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면접

면접은 변별이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갈수록 변별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중요해 질 것 같습니다. 면접은 전태련 교육학에서 조를 짜서 일주일에 2번 씩 만나 각자 만들어온 문제로 답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1차 발표 후에는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실기시험 이후에는 매일 만나서 연습했습니다.

저는 전태련 교육학의 자료와 이경범 면접 책을 기준으로 이론을 숙지하였고, 시책 같은 경우는 제가 카테고리 별로 요약해서 반복적으로 암기하였습니다. 또한 역대기출을 답변해 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 문제를 만들 때 시책과 관련해서 만들었고, 답변할 때도 시책과 관련해서 키워드를 말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스터디 원들을 만나 많은 도움을 받았고, 면접 연습하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매일 서로 발전 하는 모습 보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실제 시험: 저는 13분에 마쳤고, 감독관분들도 호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편안하게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할 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크게 말하였고,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답변했습니다.

5. 실기

저는 1차전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1차 이후부터 디자인만 백송미술학원을 다녔습니다. 서양화 전공이고 초수 때도 제대로 못 배우고 시간을 보내서 막막함이 많았는데, 다행히 백송에서 좋은 전임 쌤과 강사 쌤들을 만나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실기 점수는 낮아 나왔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가진 능력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을 해맨 시간이 너무 길어서 두려움이 컸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요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이전에 인체소묘를 가르친 경험이 있어 동네 미술학원에서 손을 풀었습니다. 일주일에 2타임만 다녔고 1차 발표 후에 백송에서 수강하였습니다.

➔ 실제 시험

에이 포 용지로 나누어 주는 조건을 잘 읽고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어지는 조건이 에이 포 용지를 짝 채워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장이 난방이 안돼서 너무 추워서 힘들었는데, 혹시 모르니 시험장 안에도 핫팩을 들고가세요, 저는 대기실에 놓고 실기장에 들어가서 고생했습니다.

저는 1차 점수가 높지 않아서 2차로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2차 준비하는 내내 마음 졸이며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했고 분명히 뒤집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을 돌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높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고 난 할 수 있단 생각으로 문제점을 보완했고, 실기 또한 문외한이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차 또한 뒤집을 수 있을거라 스스로 세뇌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글이 도움이 되어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